



# 세계연합신문



## ‘사회적 거리두기’ 왜 5월 3일 언급됐나

부활절·총선 여파, 4월말 최대 6일 황금연휴도 고려한 듯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3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

월3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은 운영 중단을 유지하되 민간부문의 경우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갖는 조치는 해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당초 4월5일까지만 실시하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4월 19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4월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 경로 미파악자의 비율 5% 이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일단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들은 이미 달성한 상태다. 신규 확진환자는 지난 9일 39명을 시작해 17일까지 9일 연속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637명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확진환자는 21명으로 3.3%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발생한 두 차례의 ‘빅 이벤트’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과 15일에는 각각 부활절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며 접촉이 발생한다.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자

리를 잡는 기간이어서 증상이 없고 검사를 해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자리를 잡아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된다.

국내에서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다. 15일 선거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됐다면 15일부터 14일이 지난 29일이 돼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1~2주간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잠복기에 따라 4월2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할 수 있음에도 5월3일을 언급한 것은 최대 6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4월 30일부터는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이 몰려있다. 연휴 기간 다수가 밀집한 곳에 휴식 모를 ‘조용한 전파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설령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2m의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단계의 구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 ‘위성정당 더는 안 돼’ 典, 선거법 개정 ‘의지’ 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빛나가…솔직히 논의해야”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선거법 개정에 군불을 때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이 비례위성정당 출몰이란 역효과를 낳자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실천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 제도가 틀

어지기 시작한 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역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난을 면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 있는 제도구나, 이것을 손을 봐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며 “소수정당을 보호

하고, 작은 여론이라도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BBS라디오 ‘이상희의 아침저녁’에서 “총선 전에도 선거제를 손을 보겠다고 말씀 드렸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비례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3일 비례정당 참여를 선언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16일 종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증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연비제의 도입 취지와 빛나가는 결과가 나왔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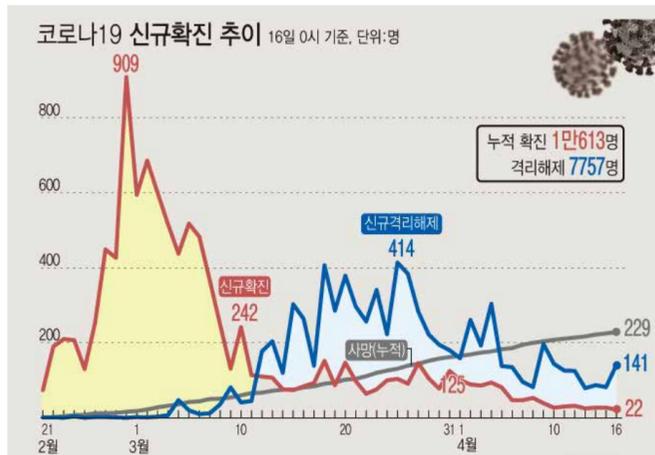
점에 대해서 솔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애초 ‘다당 구도’를 유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으나, 총선 결과 법 개정 전보다 ‘양당 구도’가 더 공고해진 만큼 개정에 대한 명분은 있다. 다만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로 뻗어가는 도시, **시흥**입니다.

-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 육·해·공 무인이동체를 연구하는 **배곧경제자유구역**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흥형 스마트시티**
-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 총선 후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 0시부터 22명 증가한 1만613명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첫날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렀다. 질병관리본부는 21대 총선 후 첫날인 16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총 1만61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

는 1만591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22명이 증가했다. 신규 확진환자는 지난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에 이어 이날 22명을 기록하면서 4일 연속으로 20명대에 머물렀다.

지난 8일 53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신규 확진환자는 50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8일간 신규

## 나흘 연속 20명대...8일째 신규 환자 50명 이하 해외유입 11명 중 4명 검역 과정에서 확인

확진환자는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12일 32명,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이날 2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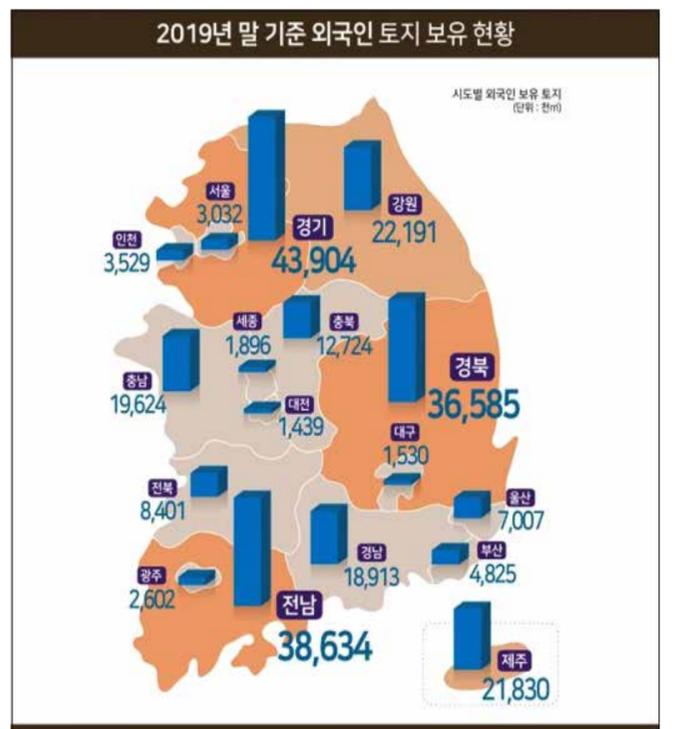
신규 확진환자 22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1명이며 이 중 4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누적 해외유입 확진환자는 967명이며 이 중 91.6%가 내국인이다. 검역에서는 총 397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는 경기와 대구, 경북에서 각각 4명씩 나왔으며 부산 3명, 서울 2명, 강원 1명이 추가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는 총 6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는 지난 12일 8명을 기록한 이후 13일 12명, 14일 11

명, 15일 11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이날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대구는 지난 10일 신규 확진환자가 0명이었으나 11일부터 이날까지 20명이 추가됐다. 경북에서도 지난 9일 신규 확진환자가 0명이었으나 10일부터 16일까지 32명의 환자가 더 늘었다. 확진 후 완치자는 141명이 늘어 7757명이며 완치율은 73.1%다. 현재 2627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총 229명이다. 치명률은 2.16%다.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2.92%에 달한다. 70대가 9.67%, 60대가 2.46%로 나타났다. 50대는 0.72%, 40대는 0.21%, 30대는 0.09%다. 현재까지 51만389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1만426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광민 기자 hanminilbo@daum.net



2019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외국인 보유 토지 248.7km<sup>2</sup>, 전 국토의 0.2% 전년말 대비 3.0% ↑...국적은 美)中)日 순 광주,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감소'... 전남은 '증가'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2.9km<sup>2</sup>)의 약 8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모두 248.7km<sup>2</sup>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전 국토 면적 10만378km<sup>2</sup>의 0.2% 수준이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 토지보유 면적은 미국이 52.2%(129.8km<sup>2</sup>)로 가장 많고 중국 7.8%(19.3km<sup>2</sup>), 일본 7.5%(18.6km<sup>2</sup>), 유럽 7.2%(18.0km<sup>2</sup>) 순이다. 기타는 25.3%(63.0km<sup>2</sup>)다.

금액으로는 미국이 41.8%(12조8803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유럽 16.9%(5

조2014억원), 중국 8.4%(2조5804억원), 일본 8.3%(2조5493억원) 순이었다. 기타는 7조5644억원으로 2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은 경기도가 4390만m<sup>2</sup>로 전체의 17.7%로 가장 많았고, 전남 3863만m<sup>2</sup>(15.5%), 경북 3863만m<sup>2</sup>(14.7%), 강원 2219만m<sup>2</sup>(8.9%), 제주 2183만m<sup>2</sup>(8.8%)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365만m<sup>2</sup>(65.8%)로 가장 많았다. 또 공장용 5877만m<sup>2</sup>(23.6%), 레저용 1190만m<sup>2</sup>(4.8%), 주거용 1030만m<sup>2</sup>(4.2%), 상업용 405만m<sup>2</sup>(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m<sup>2</sup>(55.6%)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합자법인 7116만m<sup>2</sup>(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m<sup>2</sup>(7.6%), 순수외국인 1985만m<sup>2</sup>(8.0%), 정부·단체 55만m<sup>2</sup>(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 '조주빈 공범' 부파는 19세 강훈...박사방 제2호 신상공개

### 경찰, 16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조주빈 주요 공범...범행에 적극 가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파' 강훈 군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파'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이름은 강훈, 2001년생이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훈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

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강훈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 대상의 예외가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

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와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부파'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부파'와 '이기아',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

한미 우정의공원

왜관철교

다부동 전적기념관

진남문

# 2년 연속 거주해야 청약 1순위...17일부터

## 과천 지정타·위례 등 포함...17일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제한도 10년으로 강화...조정지역은 '7년간'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대상지역	현행	개정
우선공급 지역거주요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6㎡이상 택지·세종	1년 이상	→ 2년 이상
부적격당첨자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투기과열지구	최대 5년	→ 최대 10년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

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즉,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발자구다.

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절차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서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절차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는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절차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범 기자 55db@naver.com

## 2차 온라인 개학 첫날 사이트 '불안정' 'E학습터·클래스팅' 접속 지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인 16일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는 오전 9시 일부 지역에서 연결이 매우 느리거나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총 312만여명이 온라인으로 개학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e학습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자료가 탑재돼 있으며, 교사가 '온라인학습'을 개설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

KERIS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면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최대 동시 접속자가 68만명이지만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KERIS에서 제공하는 학습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은 시스템 작업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상 상태다. '위두랑'은 교사가 학습을 개설해 학생과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를 토론하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 사이트 접속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날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등 312만명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했다. 기존 중3·고3 86만명까지 합치면 400만여명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된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 선거일에 자가격리자 당구장·PC방 활보

### 1건은 검토중...2건은 사안 경미, 고발안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던 지난 15일 자가격리자 6명이 격리지 등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중 3명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1만1151명의 자가격리자가 실제 투표에 임했으며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나왔다"며 "이중 3건은 바로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고발조치될 사례는 구체적으로 ▲당구장과 PC방 이용 ▲할인마트와 친구집 방문 ▲휴대전화 교체 등 3가지로 조사됐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사유에 해당하지는지 조사 중이다. 다른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보고 고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시간인 오후5시20분보다 일찍 투표장으로 향한 경우다. 중간에 다른 곳을 들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함께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 자가격리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아 위반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무단이탈 건수는 212건(231명)이다. 이 가운데서 수사당국이 조사중인 사건은 130건(140명)이며 이중 15건(1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팀장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기자 herowos@naver.com

## WP "韓처럼 하면 美 대선 연기 필요없어...진짜 민주주의 가르침 줘"

### 투표소 소독·비닐장갑 등 방역 소개, "한국 교훈 익혀 행동에 착수할 때"

지난 15일 진행된 우리나라의 총선을 놓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헨리 울슨은 "한국처럼만 준비한다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울슨은 15일(현지시간) WP에 '한국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보여줬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용기 있는' 한국인이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어떻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투표소의 철저한 방역 체계도 소개



했다. 그는 한국 총선의 투표소는 철저히 소독 과정을 거쳤으며 담당자들은 스티커 1m 간격을 표시해 유권자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고 전했다. 모든 유권자에 대한 체온 검사가 이뤄졌으며, 37.5도가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부수도 운영됐다고 했다. 손소독과 비닐장갑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다뤘다.

울슨은 "누군가는 이같은 방역 체계가 투표를 방해할 것으로 예측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렸다"며 "유권자 66% 이상이 투표에 나섰으며 이는 20년래 최고 투표율이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오는 교훈은 명백하다"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다면 미국의 11월 선거는 연기할 이유가 없다. 안전한 직접 투표를 보장한다면 우편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이 가르친) 교훈을 익혀 행동에 착수할 때다"고 당부했다.

# 명운 엇갈린 여야 잠룡들...대선 구도 지각변동 온다

### 유력주자 입지 굳힌 이낙연...황교안은 사퇴 협지 출마한 김부겸·오세훈 모두 고배 마셔 공천 파동 넘어 홍준표·김태호는 극적 생환

21대 총선에서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거물급 인사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갈렸다. 당선된 이들은 대권 주자로서 위상과 입지를 더욱 끌어올리게 됐지만 낙선한 이들은 정치 생명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대권 경쟁 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묘에 선 잠룡 8인의 총선 결말을 짚어봤다.

#### ▲ 대권 라이벌 결전에서 이낙연 승리...황교안은 당 대표 전격 사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대결은 각각 현 문재인 정부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였다는 점과 여야 거대 정당 수장들의 대결이란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켜왔다.

최종적으로 이 후보가 승리했고 황 대표는 낙선이 결정된 15일 당일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1년 2개월만의 당 대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당권을 내려놓았으며, 대권 행보 역시 멈추게 됐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유력 대선주자로의 입지를 굳혔다. 그는 이번 당선으로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도 확실히 뚫 수 있게 됐다.

#### ▲ 협지 도전 패배...민주당 김부겸, 통합당 오세훈 고배

협지에 출사표를 냈던 잠룡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

는 여권의 협지 중 협지, 적진 한 가운데 있는 대구 수성구에 세 번째 도전장을 냈지만 낙선했다. 60.8% 득표율의 주호영 통합당 후보에게 밀려 38.3%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20년 집권한 서울 광진구에 도전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지역구를 잡고 1년 넘게 바닥을 다져왔다. 가족까지 총출동하는 등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후보에게 마쳐 결국 꿈을 접었다. 고 후보와 초접전을 벌였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 ▲ 공천파동 끝 무소속 배팅 홍준표·김태호 극적 생환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권 잠룡으로는 대구 수성구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있다. 이들은 통합당 소속으로 고향 출마를 원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협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들은 모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전 지사는 4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로 나섰던 홍 전 대표는 대구 수성구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진정한 통합당 후보를 놓쳤다.



이낙연 황교안 김부겸 오세훈 홍준표 김태호

#### ▲ '돌아온 지역 맹주' 김두관·이광재...접전 끝 승리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하려 경남지사직을 던졌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남 양산에 도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 요청으로 경남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승리는 물론 경남 의석을 6석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나동연 통합당 후보와 초접전을 벌였다. 16일 새벽까지 100표 단위의 피말리는 개표 끝에 신승을 거

뒀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했지만 9년 만에 다시 강원 지역에 캠페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강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인의 원주강

선거는 물론 강원 의석 확장도 책임졌다. 이 전 지사는 47.5%로 박정하 통합당 후보(42.2%)를 근소하게 눌러 당선을 확정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 '3석' 안철수 "민심이 천심, 많이 부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15 총선 결과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민심이 곧 천심"이라며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극복하여 실용적 중도정치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 개혁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겠다"며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 정치를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당은 더욱 노력하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속

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며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33.8%, 더불어민주당은 33.4%, 정의당은 9.7%,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은 5.4%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개표 결과를 통해 예측한 의석수에 따르면 비례대표 총 47석 중 국민의당은 3석 가량을 배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비례 후보로 최연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1번), 이태규 사무총장(2번), 권은희 의원(3번) 등을 공천한 바 있다.

오일근 기자 sinmun2032@daum.net

**SAMSUNG**

↑

삼성 제트와 함께라면  
우리집은 언제나 깨끗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필터시스템으로  
흡입한 미세먼지는 99.999% 배출차단하고

청소 후, 먼지통은 청정스테이션에서  
미세먼지 날림 걱정없이 비워주니까

삼성제트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

청정스테이션

# 심상정 눈물...“고단한 길, 후보들에 미안”

## “10% 가까운 지지 얻었는데도 300석 중 2%...아쉽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결국 눈물을 보였다.

제21대 총선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경기 고양 갑 심 대표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비례대표 역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5석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 대표는 4·15 총선 직후인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침뚫은 얼굴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비례 1번 류호정 후보 등 당선자 확인된 후보들도 함께 했다.

심 대표는 우선 “국민 10명 중 1명이 정의당을 선택해주셨다. 지난 대선보다 많은 267만명의 시민들이 정의당을 지지해줬다”며 “과거 세력 퇴출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 중 울먹이고 있다.

민심의 태풍 한 가운데에서도 정의당을 지켜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의당은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에 불과한 의석을 갖게 됐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 대표는 특히 “정의당은 낡은 양당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다”며 “75명의 지역구 후보들이 약전고투하며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의미를 부

여했다.

그러면서 “슈퍼여당 시대에 진보야당 역할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유념하겠다.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한 여성과 청년,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겠다”며 “집권여당이 기득권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 앞에 다시 선다. 가장 멀고 험하다고 느낄 때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며 “20년을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은 또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소 담담하게 발언을 이어가던 심 대표는 그러나 당원들과 후보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참았던 눈물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다. 또한 “고생한 후보들과 당원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민생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개표방송을 심각한 표정 속에 지켜보고 있다.

## 민생당 당선자 0명, 처참한 성적표...

## 박지원 등 중량급 다선의원도 전멸

민생당이 4·15 총선에서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통합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투표용지 맨 윗자리를 얻고도 정당투표서 3%를 얻지 못했다.

당장 원내교섭단체(20석)에서 쫓겨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민생당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급조됐음에도 국민의당 계열을 이어받으면서 당 자산도 어엿한 ‘3당 지위’에 걸맞은 풍족한 자산을 확보했지만 향후 당 존립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려워진 상태다. 앞으로 국회의원 단 1석이 없는 원외정당의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0석’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기호 3번이지만 1·2번이 없어 ‘맨 윗자리’ 특수를 누렸으나 의석 확보 기준치인 3%에 못 미치는 득표율(2.73%)을 얻는데 그쳤다.

민생당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호남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제3시대 돌풍’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호남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박지원 후보(전남 목포)마저도 정치 신에 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외에도 ‘6선’ 전정배 후보를 비롯해 조배숙, 정동영, 박주선 등 다선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에 민생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당 안팎에서는 당장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서 당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 하에서 더 이상 당의 존립을 위한 추동력을 잃어 표류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생당은 오는 17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와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 열린민주 3석 확보에 정봉주 “마지막 실수 뼈 아파”

## 비례 득표율 5.42%...김진애·최강욱·강민정 당선 예측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16일 4·15 총선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비례대표 의석 3석 확보 결과에 대해 “마지막 실수가 뼈아픈 실수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자책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분들의 온전한 사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 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라며 “비록 3명 밖에 안되지만 한분 한분이 일당 백을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B TV’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며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부적절한 표현을 한 내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열린당의 비례 의석 확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필요없는 180석을 확보한 압승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그분들이 선거 와중에 저희를 난타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그분들의 성공, 민주 개혁 진영의 성공을 위해 말을 아꼈다”

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손혜원 최고위원도 “물론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 진영이 승리했고 승리 동력에 저희도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표를 주신 150만명이 넘는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한달 만에 3명을 당선시켰다는 것에 큰 위안을 받는다”고 자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 개표에서 열린민주당은 5.42%를 득표해 3석을 확보할 것으로 잠정 예측된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진애 후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최강욱 후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위원장인 강

민정 후보의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됐다.

이들은 당선 소감을 전하며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례 의석수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뽑아주고 불러모아놓은 후보들이 생각나서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열린당이 이루고자 하는 열린 정치를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기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말한대로 배신하지 않는 정치, 끝내 더 큰 하나가 되는 정치, 문재인 정권의 승리를 이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 정치를 위해 미려한 역량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도 “우리나라 교육, 법 정책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의원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 SEOUL FOCUS

2020년 4월 | 월간 발행 | 2020년 4월호 | 총 107호 | www.hanminilbo.co.kr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의 모험은 계속된다

##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 서울포커스

4월호  
2020년

☑️ **구독문의**  
☎ 02-839-6077

---

☑️ **구독료**  
월 15,000원 / 연간 15만원

# ‘이낙연계’의 탄생...후원후보 대거 당선 ‘대망론’ 탄력

### ‘후원회장’ 후보들 당선되며 ‘이낙연계’로 성장할 토대 마련 평가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송인동 인근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이 ‘이낙연계’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꾸준히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16일 21대 총선 개표결과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 위원장은 당 내에서 ‘이낙연 대망론’을 굳힌 데 더해, 새로운 ‘이낙연계’가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40여명의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전국 각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소위 대선후보급 일정을 소화했다.

이 위원장은 접전지역과 전국 권역별 유세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을 지원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후원한 후보들은 대체로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신인들이 많고, 현역 중에서는 초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추후 2년여 남은 대선까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후보들 가운데 현역 의원 중에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백혜련(경기 수원을)·고용진(노원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정(경기 파주시을) 등이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다.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둔 후보들도 있다. 고민정 후보는 서울 광진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눌렀고, 경기 지역의 용인정 이탄희·남양주병 김용민·김포갑 김주영 후보들이 접전지에서 살아남아 금배지를 달게 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들도 당선됐다. ‘그린 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소영 후보는 8호 영입인재로, 의왕 과천에서 당선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후보도 제주시갑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출신인 홍기원 후보도 경기 평택시갑에서 살아남았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에서 이 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우며 그의 도움을 받은 수십명의 후보들은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낙연계’로 분류돼 우호 세력으로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은 16일 범여권 180석 달성이라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해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후퇴라는 국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식을 주시

면서 큰 책임을 저희에게 안겨주셨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의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될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양정철 민주당연구원장.

## 민주당 총선 ‘압승’ 이끈 양정철 黨 떠난다... “다시 야인으로”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으로 선거 전략을 기획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당연구원장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거두고 16일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며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국난 극복에 헌신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다. 우리 당은 오래도록 그분의 헌신적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

영원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것을 영광으로 추억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을 이끈 최배근 우희종 교수님의 순수하고 열정도 감동적이었다.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아울러 “목표를 위해 모질게 직진만 하다 보니 당 안팎에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중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지난 1년여 취재에 거의 응하지 못한 불찰 또한 양해를 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며 “여러모로 도와 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jacine@naver.com

## ‘180석 예언’ 유시민 “그말 안했으면 200석”

### 범여 180석 발언, 실언 논란에서 예언 적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은 실언(失言)이 아니라 예언이 됐다.

유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에선 조심스러워서 130석 달성에 플러스알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오만하다”고 했고, 민주당조차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유 이사장의 발언 ‘그 이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 여권의 의석이 180석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만으로도 180석이 가능해졌다.

유씨의 ‘180석’ 발언은 과장이 아니



라 오히려 실제보다 적은 의석수 예측이 돼버렸다. 민주당, 시민당과 그리고 범 여권의 의석을 합치면 최대 188석

에 이를 전망이다.

유씨는 16일 새벽 kbs 방송에서 자신의 180석 발언을 회고하면서 “내가 180석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의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확보했을 텐데,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다.

유씨는 “앞으로 정치비평을 그만 하려 한다”며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 말을 많이 한다보면 안해야 할 말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보수정당에 대해 후술을 두기도 했다.

이성재 기자 tosjyi@naver.com

www.adparkcom.kr

## 기업도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새롭게 창업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www.adparkcom.kr](http://www.adparkcom.kr)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 BI. 원스톱 서비스**

인쇄 + 디자인	홈피+기획,디자인	광고 +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	-----------	----------	---------

**PACKAGE DESIGN SYSTEM**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A PACKAGE Basic** — ₩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웹플랫 홈피 + 기본간판

**B PACKAGE Economic** ₩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피 + 사인시스템

**C PACKAGE Premier** — ₩ 2,000,000  
CI, 또는 BI, 기본, 응용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피 + 사인시스템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  
**기업 이미지메이크업!**

**애드파크** 031-904-8805  
adpark communications 010-7591-7149  
tgpark2043@naver.com

# 홍준표 “황교안과는 손 안잡겠다”

## 미래통합당 조속히 복귀해 정상화 역할 할 것



21대 총선 대구 수성구출구에 출마한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부인 이순삼 씨와 16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출구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16일 국회의원 당선에 확정시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나와 “우리가 참패한 것이 안타깝다”며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 당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미래통합당으로 조속히 복귀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수도권이 어려워지니 대구가 망했다”며 “대한민국과 대구시, 수성주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황 대표와 당 재건을 위해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대

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당 대표를 2번했다. 현재 황 대표와 같이할 생각은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한다”고 전했다. 또 “당의 상황은 현재 절망적이고 쉽지 않다”며 “대선은 새로운 평가다. 보수 우파의 이념과 정체성을 하나로 잡고 시작해야 2022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다행인것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며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 정치판에서 25년 경험으로 봤을 때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종예전사들로만 구성하면 이길수 있다.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처지를 시험 결과 발표를 앞둔 수험생에 빗대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험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쳤다고 생각을 해도 발표날이 다가오면 초조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성을, 대구, 야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총선”이라며 “투표는 총알보다 무섭다”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말도 인용했다. 특히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대권 잠정으로 떠오르게 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던 홍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

선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다시 보수 대표 주자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홍 후보는 혐지 출마를 요구하는 당 방침에 따라 지역구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령에서 경남 양산으로 옮겼다가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다. 또 탈당 뒤 “당선이 되면 통합당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홍 후보는 공천 파동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당의 후광 없이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후보와 유승민 의원 중 한명이 보수 통합당 당 대건의 중심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 패배하고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함에 따라 ‘친박(親朴)’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당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모두 대표인 내 불찰이고 내 불민이다”고 말했다.

또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여의도 입성

## 2018년 최재성에 패했으나 2년만에 설욕



진인 최 후보를 따돌리고 금배지를 달게 됐다.

1983년생인 배현진 후보는 MBC 앵커 출신이다. 홍 전 대표에게 영입된 일명 ‘홍준표 키즈’다.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안산동산고,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1대 총선 서울 송파를 선거에서 정치 신인 배현진(사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4선 중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2시 기준 서울 송파을 지역(개표율 92%)은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51.3%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45.1%)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송파을은 배 후보와 최 후보의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2018년 6월 재선거에서 배 후보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에 영입돼 송파을에 도전했으나 최 후보에게 크게 패배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21대 총선 송파을 선거에서 4선 중

# 이언주·전희경 낙선...’보수 여전사’들의 몰락

20대 국회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내던졌던 ‘보수 여전사’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우선 부산 남구출구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는 48.7%의 득표율을 얻어 50.5%의 득표율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에게 밀렸다. 표차이는 1430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이언주 미래통합당 남구를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앞에서 삭발을 감행해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

또한 다소 강한 발언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내정됐을때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같은 분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였다

고 생각한다”며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공고히했다.

20대 국회에서 또 한 명의 보수여전사였던 전희경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한 전 의원은 42.1%의 득표율을 얻으며 48.7%의 득표율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으로 벵지를 달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해 “좌파들이 우리를 끄공 묶은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주사피와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심지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게는 ‘북한 대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의 보수 여전사들이 낙선하고 송파구출에서 배현진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여전사의 계보를 이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욱 기자 kicsp200@hanmail.net

# 김종인 “정부 여당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줘 감사”

## “미래통합당 변화 모자랐다고 인정, 잘 새겨들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16일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라며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결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

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간다고 본다.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에 따르겠다”며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성원해주신 것 마음에 간직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 고품격 자연주의 안성마춤

### 2019 퍼스트 브랜드 대상 12년 연속수상 (대한민국 퍼스트클래스)

2011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2010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2009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대통령상) /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2008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올해의 브랜드 대상  
 2007 대한민국 우수 특산물 대상

천혜일미 - 안성마춤 쌀

자연을 담은한우 - 안성마춤 한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 안성마춤 배

백년의 정성으로 길러낸 결실 - 안성마춤 포도

동양의 자연적신비 - 안성마춤 인삼

# 서울시민 63% “생활방역 전환 이르다”...경기침체 불안 92%

## 市,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생활방역 전환시 무증상 감염 등 우려 가족들 수입 감소 48%...실직·퇴직 17%

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19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표본오차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1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대다수(97%)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19일 이후에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

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51.3%)을 선택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선 ‘19일 이후부터 바로 생활방역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가 33.4%, ‘전환이 필요하지만 19일 이후는 조금 이르다’가 63.6%로 나타났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점 판단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확진자 10

명 이하일 때’(33.8%), ‘30명 이하일 때’(19.6%), ‘50명 이하일 때’(9.2%) 등의 순이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무증상 감염 등 원인 미상 감염’(58.5%)과 ‘새로운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41.6%)을 꼽았다. 시민 10명 중 3명은 국가통제 불가능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가장 우려되는 시설·환경으로는 ‘유흥·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46.9%)과 ‘보육·교육시설’(42.2%), ‘대중교통’(35.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는 ‘혼잡제한 좌석배치 등 밀접접촉 최소화 동선’(30.3%)이 가장 많았다. ‘개인예방수칙 준수 관리’(27.6%),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시스템’(17.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전망 등에 대해

서도 조사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7~12월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51.8%, ‘연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23.2%에 달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경기침체’(64.8%)를 전망했다. ‘대량해고와 파산 등 대공황 수준의 위기’는 22.1%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일상회복, 경제, 사회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수준도 살펴봤다. ‘새로운 집단 감염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감(92.8%) 만큼이나 ‘내수·수출감소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92.2%), ‘사회변화로 인한 대규모 해고와 실업률 증가’(91%) 등 경제적 영역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응답자의 48%,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실직한 경우는 17.6%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경험한 적 있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41.9%)이었다. 또 ‘나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34.6%), ‘외부·신체활동 제한’(33.1%), ‘경제적 부담·불안’(29.5%) 등이 코로나 블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감염자 치료’(89.6%), ‘감염병 확산 제어’(80.6%)

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신뢰하고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생활방역을 위한 직장·학교·지역 사회의 준비’(73.5%),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역량’(73.2%), ‘정부의 행정 지도와 감독능력’(71%)을 신뢰했다.

의료진 등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93.7%), 우리 방역 능력에 대한 ‘자부심’(84.5%), 의료산업 등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82.4%),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국민들에 대한 ‘감동’(80.3%)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껴본 적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6.9%가 ‘이번 사태에서 서울시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 안양시, 명학마을 주거환경개선 순조롭게 진행



두루미 하우스 조감도.

경기 안양시가 안양8동 명학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골목환경개선사업’ 착공식을 갖는다. 6500㎡의 골목길 재포장과 2450㎡의 담장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에 계획 중인 ‘스마트케어 하우스’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오는 6월 초 착공식을 갖는다. 모두 33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면적 339㎡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을 위한 돌봄 시설, 경로당,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운영될 ‘마을카페’ 등이 들어선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0일 일명 ‘두루미하우스’ 착공식을 가졌다. 두루미하우스에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24세대가 건립된다. 또 주변에 주차능력 140여대의 지하 1·2층의 주차장과 마을 관리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30억원의 LH 부담 비용 등 총 1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중 처음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59호까지 사업비를 지원 했다. 올해는 모두 50호를 대상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주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관내 건축사협회와 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도시재생뉴딜이 이뤄지는 명학마을을 상징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브랜드를 위한 마을캐릭터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프로그램과 직무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명학마을은 안양의 원도심지역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 지난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지정됐다. 이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1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포함 2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저소득층 서비스 진행

### “소비쿠폰 직접 찾아가서 드릴게요”

인천 남동구 구월2동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한시생활 지원)을 위해 한시적 주말운영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상품권(인천e음카드)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해당 상품권(인천e음카드)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총전된 지원금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민원 분산을 위해 출생년도 별 5부제를 실시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이다. 동에서는 특별히 생업 등을 이유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25일과 5월2일 이틀간 한시적으로 주말(09시~13시)에도 지급업무를 진행한다.

또 고령의 어르신과 및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분확인 후 상품권(인천e음카드)을 직접 교부할 계획이다.

최민영 동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하루 속히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근원 기자 kwj39@hanmail.net

**KCC**

공간을 완성하는 1%의 차이  
이맥스클럽이 만듭니다

어떻게 유리를 가공했느냐가 공간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이맥스클럽이 만든 유리는 KCC만의 기술력으로 까다롭게 검증하여  
품질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맥스클럽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Class가 다른 Glass**

**e·MAX Club**

**KCC 글라스** www.kccglass.co.kr KCC글라스는 KCC그룹의 유리,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경기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삼수 끝 본궤도

## 수공-신세계 사업협약 체결, 내년 착공후 2026년 1차 개장



경기도 화성시에 2026년에 개장할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좌절을 이겨내고 드디어 국제테마파크의 꿈을 이루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16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식'을 갖고, 총면적 316만㎡에 4조600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7년 사업 추진 이후 최초의 본 협약으로, 우선협상대

상자에 머물렀던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토지공급 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USKR 사업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IMF)로 중단된 이후 2012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단계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2018년 2월 정부가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된 뒤 같은해 11월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며 상황은 급반전을 보였고, 서철모 화성시장이 2018년 초 청와대 제임 시절 국제테마파크 정상화 논의를 이끌어내며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확정 등의 건의를 통해 착실히 사업정상화에 앞장서 왔다.

송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이번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어드벤처월드, 퍼시픽 오딧세이, 주라지월드, 브릭&토이킹덤 등 4가지 콘셉트의 테마파크와 1000실 규모의 호텔 및 쇼핑공간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서기원 기자 kscope777@naver.com



## 부천시의회, 241회 임시회부터 의정활동 '유튜브'로 제작,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

경기 부천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부터 주요 의정활동을 유튜브로 제작해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의회는 주요 시정현안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해를 도왔다. 부천시의회tv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3월 개설한 이래, 의원과 시민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청소년 의회교실' 등 주요 의정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접근성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부천시 의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 16일에 공개한 유튜브 영상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5명의 의원의 시정질문(구두)과 장덕천 시장의 답변을 자막과 함께 편집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됐다.

부천시의회tv의 영상들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buche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 연매출 10억 원 이하 IC카드 결제 매장 사용 가능

배성윤 기자 =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과 관련,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6일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소개했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 1000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 편의점(가맹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 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전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계제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 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동근 기자 jpongwon1993@hanmail.net

## 경기도교육청,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

### 3~4월 수업료 결손분 50%...5월 6일까지 접수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만 4300원이다.

신청 대상은 3·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류시석 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

**의회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 함안군, 2020년 수박 시험사업 현장 평가회

## 수박고정식 하우스 설치 농가의 추진상황 평가



함안군은 지난 14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유진호 씨 농가에서 '2020년 시설원예연구소 협력 시설수박 시험사업'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지난 14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유진호 씨 농가에서 '2020년 시설원예연구소 협력 시설수박 시험사업'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김준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박생산자협의회, 시설원예연구

소 등이 참석한 이번 평가회는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수박 고정식 하우스를 설치한 농가의 추진상황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함안고정식 개발

비교를 비롯해 개발모델의 확대가능성 여부, 저온기 중·소과종 수박 상품성 평가 등이 진행됐다. 군에 소재한 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와 군은 2015년 업무 협약식 이후 매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추진과 협력 사

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함안지역에 적합한 고정식 수박 하우스를 개발하고자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9년에 함안지역의 기후에 맞는 수박하우스를 설계해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번에 개발된 고정식 시설하우스는 기존의 이동식 하우스를 고정식 하우스로 변경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설수박하우스의 스마트 팜 적용을 용이하게 하며, 연작장애 경감을 위해 여름에 비를 재배하는 함안수박 재배의 특성을 반영해 영농작업이 한결 편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평가회에서 김 부군수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시설원예연구소가 개발한 함안고정식 개발모델 수박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면 노동력 부족 해소, 스마트 팜 시설도입 효과 등을 통해 함안수박 재배기술이 한층 발전하고 수박산업 특구로서 그 가치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영달 기자 bod600@naver.com

# 부산 청년마을놀이터 5월 본격 운영...입주예술가 모집

부산의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청년마을놀이터'가 내달부터 본격 운영 된다. 부산시는 원도심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 한 '청년마을놀이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입주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마을놀이터'는 청년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시는 2022년까지 총 5곳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운영 할 2곳 중 첫 번째로 현재 중구 영주동에 있는 빈 공간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마무리 중이다. 입주 청년단체는 공간 임대료 없이 해당 공간에 머물며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참여예술가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율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예술인과 주민, 주민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청년예술단체 또는 ▲부산 내에서 1회 이상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청년예술단체로 입주 기간은 2년이다. 기간 만료 후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 2팀을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예술단체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후 2시 입주공간에서 현장설명회 진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확

보가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문화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생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에 힐링과 위로가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영자 기자 lovesg427@hanmail.net

# 창녕군, 조기재배 벼 모내기 실시

창녕군은 지난 15일, 창녕읍 하리마을을 김충곤(38세) 농가의 논 0.4ha에서 벼 조기재배 단지의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올해 12개 읍면 일원에서 벼 조기재배단지 100ha를 조성해 (품종:진옥벼) 생산된 벼를 8월초에 수확한 후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에 계약 체결해 판매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벼 조기재배는 태풍과 병해충 등의 피해를 경감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맞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재배 모내기를 실시한 김충곤씨는 "추석 전 조기 출하로 일반농가에 비해 20~30%정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농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 1588-1058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 구형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사진) 경남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심리로 열린 송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뇌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또 송 시장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이번사건은 청렴결백 해야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그 댓가로 관공사를 수수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사천시민의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린 사건으로 엄벌이 불가피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건설업자 A씨로 고급의류 17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 이외에도 해외골프 여행, 골프채 등 각종 선물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기소되지 못했다"며 "송 시장은 A씨로부터 받은 1700만원 상당의 의

류는 빙산의 일각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공모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송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구형, D씨에게 징역 1년 구형, E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공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건설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000만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송 시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설업자 A씨는 송 시장 뇌물수수혐의 등에 관한 8차 심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송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선호 기자 aaa2779@naver.com

# 김해시, 임대주택 계약 만료 '문자알림' 서비스

김해시는 도내 최초로 4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역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불이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의 경우 포함),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변경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사전통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알리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이 되도록 한다. 시는 지역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8,229호를 대상으로 매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민간임대주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선라 기자 ditif115@naver.com

명암우수 농·특산물

정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남농특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 대전시-충남대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유치 성공

## 3년간 51억원 투입, 바이오+AI 융합연구, AI인재 100명 양성

### 대전, KAIST·UST·ETRI·충남대 등 인공지능 인재 양성 메카로 우뚝

대전시가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대학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는 인공지능 학과와 다양한 학과가 협업체적 융합연구 및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총 15개 대학이 신청해 충남대, 부산대, 인하대, 한양대예과가 등 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치를 위해 충남대는 지역특화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며, 대전시도 지방비 투입 의지를 밝히고 '지역발

전과 연계한 바이오-인공지능 연구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는 3년 간 국비 41억원, 시비 6억원, 대학 4억원을 포함해 총 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융합연구센터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특화해 융복합 인재양성 및 대전-충청권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 바이오 AI-Cure 트랙, 바이오 AI-Animal 트랙, 바이오 AI-Plant 트랙 등 3개의 특성화 트랙으로 '바이오 AI-CAP 융합그룹'을 운영한다.

바이오 AI-Cure 트랙은 신약개발·유전체 기반 동반진단 기술 플랫폼 개발, 바이오 AI-Animal 트랙은 가축성

밀 표현체 플랫폼 개발, 바이오 AI-Plant 트랙은 Agro-Medical Food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이다. 또 컴퓨터, 약학, 생물학, 축산학, 원예학 등 다양한 전공이 융합되며, 2021년부터 매년 40명(석사 35명, 박사 5명) 이상을 선발해 사업기간 동안 인공지능 융합인재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충남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유치를 계기로 지역 바이오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대학특구 출연(연)과 협력해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

능(AI)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인공지능(AI)교육,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AI)아카데미 등과도 연계해 대전을 인공지능 인재 양성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된 이후, 대전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략을 마련 중인데 충남대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대학특구 출연(연)과 협력해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

차현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 부산 취업자 13개월 만에 가장 낮아... 고용률 5개월 하락, 실업률 4.3%

지난달 부산지역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또 고용률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7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1.0%) 감소했다.

이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164만1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임금근로자는 12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3.3%) 감소했다. 이 중 임시근로자는 7000명(2.9%)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 2만7000명(-23.6%)이나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3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7.0%) 증가했다. 이 중 자영업자가 1만6000명(4.7%)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

비 광공업은 3만3000명(-1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2000명(-1.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000명(-3.6%) 각각 감소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3만1000명(8.1%) 증가했다. 직업별 취업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2000명(5.4%), 사무종사자 9000명(2.8%) 각각 증가한 반면, 관리자·전문가 4만9000명(-14.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종사자 3000명(-0.5%) 각각 감소했다.

또 고용률은 55.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7.0%, 올 1월 56.2%, 2월 55.9% 등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18.4%) 감소했다.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 (주)독도재단, 일본 역사 왜곡 잠재울 '독도 알아야 지킨다' 발간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독도 교육자료 '독도 알아야 지킨다'를 발간했다. '독도 알아야 지킨다'는 지난 10년간 독도재단이 축적해온 독도 관련 교육 및 연구 성과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이름과 문헌에 기록된 독도, 역사 연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 등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책자는 교육 기업인 ㈜천재교육·천재교과서와 공동으로 펴냈다.

독도재단은 지난 2016년 재미한국학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사연수회 교사들과 이성적인 차세대 한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독도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 '독도 알아야 지킨다'가 탄생했다.

재단은 이번에 발간한 이 교재를 재

단의 초중고 및 일반인 독도바로알기 교육 참가자를 비롯해 독도홍보버스와 전시회 등 독도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독도재단(www.koreadokdo.or.kr)와 K-독도(www.k-dokdo.com)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앞으로 다국어로 번역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적 진실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고유 영토라는 것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재단은 이번 교재 발간을 기념해 오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주제로 풀어보는 '독도교재 발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재단 페이스북(facebook.com/dokdojd)에서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이신호 기자 aas2779@naver.com

# 의성군 '지역 농·특산품 팔아주기' 이벤트



경북 의성군 '지역 농·특산품 팔아주기' 봄 이벤트.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김주수 군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의 농·특산품 판로해결을 위해 '지역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의성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미나리, 감자, 깻마늘 등 공무원원과 기관단체 등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코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4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판매됐으며, 군은 이달 말까지 생가지와 김치 등의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의성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 장날'에서도 최대 40% 할인 등의 이벤트를 4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팔아주기 품앗이 완판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경북지역 농가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달 기자 bod600@naver.com

**압도적 1위의 혁신 LG 트루스팀**

물을 그대로 끓여 만든 강력한 살균의 트루스팀, 오직 LG전자 건강관리가전에만 있는 No.1의 기술이니까 우리집 건강은 오늘도 안심입니다

- 2020년 식기세척기 부문 에너지워터리소수상
- 의류건조기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2년 연속 1위
- NCS와 2019년 건조기 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가전 부문 11개 제품 1위)
- 의류관리기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LG DIOS** 식기세척기  
트루스팀으로 살균세척 식기의 유해세균 바이러스 99,999% 제거

**LG TROMM** 스타일러  
트루스팀으로 살균케어 의류의 유해세균 99.99% 살균 바이러스 99.9% 제거

**LG TROMM** 건조기 STEAM  
트루스팀으로 살균건조 옷감의 유해세균을 99.99% 살균

**LG전자 건강관리가전 STEAM**

# 전남대, 21대 총선서 동문 당선인 17명 배출

## 광주·전남·서울·경기에 고루 분포...민주 15, 국민의당·정의당 각 1명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16일 광주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대학교 출신 동문이 17명 당선됐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남대 출신은 지역구에서 광주 7명, 전남 4명, 서울 1명, 경기 3명 등 15명이며, 비례대표도 2명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당과 정의당 각 1명으로 다양한 지역과 정당에 고루 분포했다. 당선인 중 학부출신은 모두 9명으

로, 광주 서구갑 송갑석(무역학과), 광주 북구갑 조오섭(신문방송학과), 광주 광산갑 이용빈(의학과), 광주 광산을 민형배(사회학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국문학과),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경영학과), 경기 군포시 이학영(국문학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사법학과),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해양학과) 등이다.

또 대학원이나 공개과정 출신은 경기 안산·단원을 김남국(법학전문대학원), 경기 김포시를 박상혁(법학전문대학원), 광주 동구남구를 이병훈(행정학과 박사),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NGO협동과정 박사),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행정대학원 수료), 광주 북구를 이형석(정치학과 석사), 서울 종로구 이낙연(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광주 서구를 양항자(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전남대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 7명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40명을 배출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 광주시 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 설치...무단투기 방지 효과 '톡톡'



인적이 드문 골목길, 원룸촌 등 쓰레기 상습투기 발생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한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원룸촌 등 쓰레기 상습투기 발생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로고라이트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렌즈에 LED 불빛을 투사시켜 바닥이나 벽면에 이미지를 비추는 장치로 야간에 식별이 쉽고 의사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번에 설치된 로고라이트는 원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에 설치,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점등된다.

로고라이트가 설치된 골목길은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 드는 등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춰주는 범죄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문구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쓰레기 무단투기 아이가 배워도 되나요?' 등 4가지 홍보 문안을 제작·운영하며 홍보효과를 높였다. 이성재 기자 tosjyi@naver.com

# 대전경찰청, 교통사고 예방 야간 점멸신호 운영 체제 개선...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합동 추진

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점멸신호 운영체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 대 줄이기 대책 발표와 안전속도 5030정책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 보다 앞당겼다. 올해 안에 정착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점멸신호 개선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맞춤형 신호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 1개월 동안 대전권 점멸신호운영 844개소와 경보등 433개소 등 총 1,27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54개소 점멸신호 운영체제를 변경하기로 하고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권에 총 1,446기의 신호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602기는 24시간

정상운영, 844기는 심야시간대 교통량 및 교통안전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멸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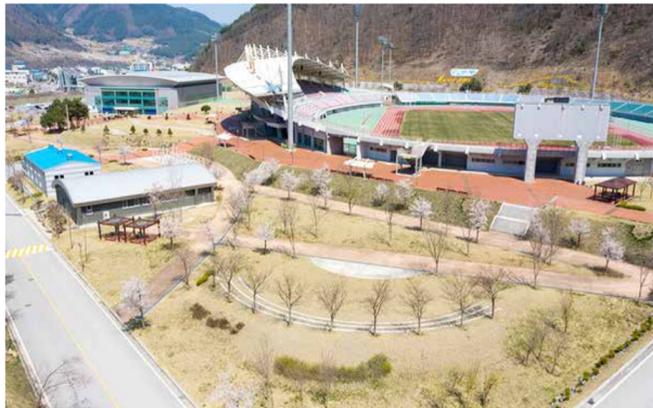
세부적 변경에는 총 54개소 중 대전로 효동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또는 신갈마로 갈마초등학교 삼거리, 충대서문네거리 등 10개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00시부터 06시까지 점멸 운영하던 것을 24시간 정상운영 한다.

또한 대둔산로 안영체육단지 삼거리 또는 보문산로 신성시장 단일로 등은 등산이나 운동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이동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당초 00~06시 점멸 운영하던 것을 01~05시로 축소했다. 그 외 2시간 가량을 추가해 정상신호로 운영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코저 했다.

보문로 문창시장 단일로 및 대전중학교 앞 단일로 등 9개소는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전환 운영하거나, 협포형 횡단보도로 개선 등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시설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정선군, 생활권 밀착 맞춤형 힐링 체육공원 조성

## 사업비 4억 투입 정선종합경기장 일원, 생활체육 활성화·새 휴식공간으로



강원 정선군이 군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권 밀착 맞춤형 힐링 체육공원 확충에 적극 나섰다. 사진은 정선종합경기장 전경.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군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권 밀착 맞춤형 힐링 체육공원 확충에 적극 나섰다. 군은 군민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시설로 많이 찾고 있는 정선종합경기장 일원을 주민편의 생활권 밀착 맞춤형 힐링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권 밀착 맞춤형 힐링 체육공원은 정선을 애산리 정선종합경기장 일원 유휴공터에 총사업비 4억을 들여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체육과 운동,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체육공원을 만들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새로운 휴식공간으

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체육공원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단풍나무, 느티나무, 연산홍 등 약 4000그루의 나무를 내달말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체육공원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관내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방과후 숲체험 학습장소로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걷기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공원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인프라가 구축돼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운조 기자 wj3737@gmail.com

www.gumici.or.kr

# 구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민주의정, 화합의정,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 의정으로  
희망찬 구미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GUMICITY COUNCIL

# 아산시, 학교 급식업체 경영난 타개... 선금 지급

## 지난해 3~4월 매출액 40%범위 내 지급, "급식업체 경영난 극복... 선금지급 계획"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출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학교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

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50개 공급(배송)업체가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4개월 넘게 수입이 없어 휴업을 신청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이에 폐업·휴업 등 경영난을 극복하고 향후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2020년 1월 선정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3~4월 매출액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추후 급식이 재개되면 납품액에서 분할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13일부터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염치읍 방현리)내 학교급식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오는 20일 이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장기간 급식중단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선금지급 계획을 세웠다"며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충환 기자 gj6300@hanmail.net

### 서산시, 과잉생산 6쪽마늘 46톤 대부분 소진됐다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 등 시의 체계적 마케팅 돋보여



지난 3월초 46톤에 달했던 충남 서산6쪽마늘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다. 서산시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시는 지난 3월 중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시작으로 25일부터 3일간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병행 추진해 약 1톤의 마늘을 판매했다. 이달초부터는 서산시연합사업단의 통합마케팅사업과 연계해 전국 농협계열사, 마트 등 573 개소에서 특별 판매전을 열어 약 20톤의 물량을 소진했으며, 지난 10일에는 국내 메이저급 TV 홈쇼핑을 통해 약 5톤을 판매했다. 특히 농식품유통과에서는 KBS 1TV 6시내고향 담당 작가와 직접 협의해

TV방영을 성사시킨 결과,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구매가 이어져 약 1.5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까지 46톤 중 31톤이 판매됐으며 상품성이 떨어지는 재고량 10여톤은 다진마늘, 간마늘 형태로 가공처리해 판매될 예정이다. 유기영 마늘법 대표는 "지난해 과잉생산에다 코로나19로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많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 처리가 됐다"며, "앞으로 6쪽마늘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 고흥군, 초보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성공귀농 행복귀촌, 멘토 멘티 현장 교육 & 농업배움터 등 지원

전남 고흥군은 고흥의 자연경관과 사람이 좋아 귀농·귀촌하는 초보 도시민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농가의 경험과 열정을 결합한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 농업배움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다.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은 고흥에 먼저 귀농·귀촌하여 안정적인 정착으로 영농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선도농가와 초보 귀농인을 1:1로 매칭하여 현장에서 직접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유자, 레드향, 수도작, 귀리 등 5개 작목의 선도

농가를 선발하여 농가의 장점과 작목을 배우고자 하는 초보 귀농인 연수생 5명을 선발하였으며, 본 사업 참여자가 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선도농가는 40만 원, 귀농연수생은 80

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농업배움터 학교는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단호박, 석류, 한우 등 4개 반을 구성하였으며, 귀농연수를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0일자

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총 40명을 선발하고 작목별 선도농가와 초보귀농인 10명을 연결하여 총 10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운영비로 4백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농업 창업에 따른 실현가능한 사업구상을 추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향·귀촌인 집들이 지원, 자연마을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귀향청년 유턴 지원사업, 귀농인과 원주민 소득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 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 실시

충남 보령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상·하수도 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고지서 발행을 위한 제작비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시민들에게는 낯가 내 적기 안내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지서 발행 및 우송의 경우 1건 당 450원이 소요되는데 문자 서비스로 시행할 경우 1건 당 50원에 불과해 최대 9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보령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내달부터는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www.brcn.go.kr/waterpay)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고지서 발행 시기인 익월 10일 경 문자를 보낼 계획이며 이달의 경우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내달 10일 경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신명섭 수도과장은 "매월 2만 1000건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행으로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최소 5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현행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키로 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경산시의회**  
www.gbgs.go.kr

우리 아이가 안전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생각합니다.





우리금융그룹

#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복했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할때  
 우리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